

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일본 렌트겐학회 재해 예방규칙 기초위원회의 제1회 수정안인 렌트겐선방어규칙을 조선 렌트겐협회회지 제1호 (1932년)에 鈴木 교수가 소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936년 2월 조선렌트겐협회에서는 렌트겐선재해예방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일본내무성의 승인을 받아 진료렌트겐장치의 취제규칙을 제공공포한 것이 해방 전까지 사용하게 되었다. 해방과 함께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은 국민의료법과 원자력법규 등에서 관리하도록 제도화되었으나 그 사항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의료용방사선의 국가관리체계가 이원화의 관리체제로 구축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1928년부터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적 권고가 나왔으며 현재까지는 각국에서 ICRP 26 및 ICRP 60의 권고를 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용방사선에 대한 관리를 치료 및 방사선동위원소는 과학기술처에서 제정 공포한 원자력법규 등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진단용방사선은 의료법규 등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관련 의료기기는 약사법규 등에서 관리토록 제도화 되어 있다.

선진각국에서는 의료용방사선 관련 의료기기를 관리키 위한 제도가 국가 및 민간의료기관과 상호 협력하에서 자율적으로 관리체계는 발전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으나 간접적으로는 국가의 감시·감독하에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와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01〉

비골 측면상의 보조기구를 사용한 촬영방법에 관한 연구

신일전문대학 방사선과
김경근·유장수

목적

비골 골절 의심 환자의 비골 촬영방법에는 여러 가지 촬영법이 있다. 비골 측면 촬영은 비골의 측면과 필름면과는 정확한 수평을 이루어야 만이 정확한 영상을 묘출 할 수 있기에 본 저자들은 간단한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정확한 비골 측면상을 얻을 수 있어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비골 골절환자를 대상으로 페필름을 이용한 보조기구를 제작하여 환자의 비골 정중양면에 부착 환자를 정측면 자세잡이를 하여 이 보조기구에 맺힌 그림자의 음영을 이용하여 정확한 측면상을 얻는다.

결과

새로 고안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촬영했을 때 진단학적으로 훌륭한 정측면 상이 묘출되었고 촬영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결론

비골이 낮은 환자나 비골 외상환자들의 정측면 자세잡이를 하는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방사선과에서 나오는 페필름을 이용 보조기구를 제작하여 페필름으로 만든 보조기구의 그림자 음영을 이용해서 촬영한 결과 비골측면의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었고 촬영

영사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다른 촬영법 보다 줄일 수 있었다.

<02>

대퇴슬관절의 접선방향 촬영에서 슬관절 굴절각도에 관한 고찰

한림대학교 동산성심병원 방사선과
양재철

목적

대퇴슬관절의 접선방향 촬영법중 슬관절을 굴곡시키는 각도가 45도 이상의 촬영법 보다 20도 굴곡시켜 촬영하는 방법이 진단정보 제공면에서 우수함을 전산화단층촬영법과 비교 검토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슬관절의 통증이 있는 10명과 대조군으로 정상인 10명을 각각 슬관절 45도 굴곡시켜 촬영하는 Merchant view, 20도 굴곡시켜 촬영하는 Laurin view로 접선 촬영과 CT를 이용 0.5, 10~45도, 굴곡시켜 대퇴 슬관절을 촬영하였다.

결과

Merchant view는 슬관절을 45도 굴곡시키는 관계로 CT와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인 경우도 정상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Laurin view는 슬관절을 20도 굴곡시켜 촬영한 것으로서 CT와 비교했을 때 비정상이 정상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었다. CT촬영의 0~15도까지는 슬개골이 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측정 의미가 작았으며 45도에서는 슬개골이 구로 완전히 들어 감으로서 비정상이 정상치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2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CT촬영이 가장 실측에 가까운 측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

결론

대퇴슬관절의 접선촬영법으로는 슬관절의 굴곡이 최소각도인 20도 촬영하는 Laurin view와 CT를 비교하여 CT가 우수함을 알수 있었으나, 복잡성 피폭, 비용면에서 간단하고 저렴한 일

반촬영인 Laurin view가 CT에 근접하게 정보 제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접선촬영은 Laurin view를 권하고 싶다.

<03>

종합건강진단의 유소견에 관한 연구

아산재단서울중앙병원 방사선과
조정찬 · 류명선 · 김건중

목적

급속한 산업의 발전과 함께 건강 또한 인식과 관심도가 매년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종합건강진단을 실시 자신의 건강관리를 유지하며 또한 질병의 원인을 조기발견하고 예방과 치료로 최고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종합건강진단의 검사결과 의외로 각종질환의 발병을 증가와 다양한 질병의 발견으로 건강진단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어 검사자 현황 및 유소견 비율을 연령 및 성별로 분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아산재단서울중앙병원의 종합검진센터에서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검사한 43,648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질병별로 분류하였다. 연령별은 10년 단위로 20대에서 70대까지 분류했으며 질병 분류는 70여 병변으로 세분하여 결과가 나왔으나 본 논문은 남녀 유소견 비율이 높은 위염, 고혈압, 간기능 이상으로만 분류했다.

결과

총 검사자는 43,648명 그중 남자는 27,068명(68%), 여자는 16,580(32%)이며 연령별로 20대(남 946, 여 769), 30대(남 6,821, 여 4,714), 40대(남 11,763, 여 5,312), 50대(남 5,383, 여 4,090), 60대(남 1,688, 여 1,490), 70대(남 467, 여 205)로 나타났고 40대, 30대, 50대 순으로 검사자가 많았으며, 특히 40대는 전체검